

2008년 6월 3일 메시지

- 사람은 자꾸 길러야 합니다. 길러서 만들어야 합니다⁴⁷⁹⁸. 모든 것이 다 만들기에 달려 있습니다.

- 말씀을 천천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헛일이니까요. 시간이 좀 늦더라도 (빨라봤자 5분 10분차이니까) 천천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음악처럼 곡의 높고 낮음 이런 걸 지키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해되도록 설득력 있게 전하고 음성도 좋아야 합니다. 음성이 개 끌려가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음성도 좋아야 하고 말도 잘해야 합니다. 말의 능력, 말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의 감동, 말의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을 써서 출간해야 하지만 급한 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월명동 같은 곳이 세계에 없습니다. 월명동을 보강할 것이 있는가 하고 28개국 나라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리장성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벽돌로 쌓은 성벽일 뿐입니다. 이것은 누구 나 다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월명동 같은 장소를 만드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녀 봐야 합니다. 월명동 갔다 온 외국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 만들었다고 하니 다 놀래면서 안 믿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월명동을 귀하게 보며 잘 하고 있습니다.

- 50명 정도 되는 교회는 내가 딱 하루 일한 것 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하루만 하면 200-300명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외국 가서 50개국 나라에 복음을 넣고 온 것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진짜 복음 넣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복음의 씨를 다 뿌리고 왔기에 지금은 다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